

열린세상



정정용
논설실장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좌우할 한 주가 시작됐다. 이번 주는 우리 역사상 한번 겪을까 말까한 중대 사안들이 한꺼번에 몰린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이고 또 하나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 정치 지형을 판가름할 6.13 지방선거이다. 결과에 따라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 내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리게 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세기의 담판'이라 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이미 담판장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은 조망기에 들어간

국가의 운명·미래 걸린 '슈퍼 위크'

셈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세계 유일 '냉전의 섬' 한반도에 해빙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는 갈림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북미정상회담·지방선거 실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단연코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이다. 북미 양측은 첫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이미 마친 듯하다. 잠정적인 대북 안전보장책으로 남북미 3차 종전선언 논의의 기색도 엿보인다. 아직 간극이 있다는 관측이지만 이런 '이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대좌'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남북관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교류와 화해의 기운을 터놓은 터라 북미정

회담이 성공한다면 남·북간 교류는 붓물 이 터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두 정상이 결단과 의지를 저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북미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안은 6·13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누누히 강조해 왔지만 그 의미나 중요성이 북미회담 못지않다. 이번 선거는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고, 이를 감시할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손으로 뽑는 지역 일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주무른다.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에게 내 지역의 공간을 넘겨줄 순 없다. 무관심 속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나 '묻지마식 투표'를 한다면 자신에게 부메랑된다. 이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도 된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차고 넘친다.

그렇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북미정상회담 등의 이슈에 파묻힌 것이 1차 이유다. 하지만 현재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유권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든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자초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

간 자칫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걱정 앞선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2곳에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미니 총선'이라 불리기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선거 결과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공산이 매우 크다.

올바른 투표는 민주사회를 사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인 동시에 무거운 책무이다. 내한 표에 지방 살림살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다.

적극적 참여와 관심 가져야

이번주엔 이처럼 큰 두가지 사안이 겹쳐지고 실시된다. 북미정상회담 성공도 지원해야 하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 역량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책무도 동시에 떠안은 한 주이다. 이번 주 우리 모두 관심과 슬기로운 선택을 통해 자랑스런 대한민국,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 한 주를 만든 후 즐거운 마음으로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는 '슈퍼위크'를 만들 일이다.

사설

'세기의 북미 회담' 성공 기원한다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은 '세기의 담판'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번 북미 회담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공을 기원한다. 이번 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담판을 벌이는 세기의 회담이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이 슈는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 유망할 수 있는나가는 가능자인 것이다. 미국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은 이 용어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양측은 실무회담에서 핵심의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

으나, 간극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닌 듯하다. 결국 이런 '이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대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우리 측도 자세를 관주세워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빨라지는 것이 불문가지이다. 앞서도 언급 했듯, 이번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북미회담에 중재자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북미회담에 우리의 이익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조율해야 한다.

SNS상 '은밀한 성매매' 대책 시급

SNS 등에서의 성매매 알선 행위 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히려 채팅앱에서 기승을 부리던 조건만남 등 성매매 알선이 텅블러, 페이스북 등 SNS까지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SNS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다. 하지만 최근엔 텅블러, 페이스북 등 대형 SNS플랫폼에서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상 성매매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 심각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텅블러, 트위터 등 사이트 성매매·음란 정보 3만여 건에 대해 차단·삭제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정보는 상당수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치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채팅앱 관련 성매매를 적발한 건수는 87건, 18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성매매앱소 등을 포함한 단속이 274건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무엇보다 채팅앱 등의 성매매를 적극 단속하고는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 놀랍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신원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서의 증거가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

그동안 주로 이뤄졌던 채팅앱 성매매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고 관리가 부실한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

는 신원 확보가 어렵고 현장에서의 증거가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email addresses.

기고



양현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소비자보호팀 팀장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필수로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그 효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연간 2,000여건에 이르는 등 전 금융권역에서 보험 관련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험가입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는 보험상품 구매에 따른 손해 또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와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별도의 요식행위 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보험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험상품명(특약),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이 기재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며 보험회사는 승낙의 표시로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체결과정과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유형은 '본인이 원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납입보

험료가 과다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이다.', '해약시 받는 환급금이 너무 적다.' 등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계약자 등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청약서에 계약자 등의 본인 자필서명이 이루어졌고, 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보험계약 체결확인 모니터링(녹취록)시에도 계약자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 민원인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도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소비자들이 일반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품의 종류(보험상품), 원가(보험료 및 납입기간), 가치(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도 일반제품과 마찬가지로 구매 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

거나 또는 상품구매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해 주는 청약철회제와 품질보증제를 두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구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와 보험약관을 계약자가 전달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가 있다.

보험은 위험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 필수로 여겨지지만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험은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이신
통일사회연구소 소장

내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운명과 우리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북과 미국은 234개 국가 중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상대를 '악의 축'과 '철천지 원수'라 부르며 73년을 지냈다.

그런데 2018년 6월 12일은 두 나라가 두렵게 쌓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친구관계로 변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원수에서 친구로 변신은 대북대대정책 포기

북미 정상회담과 옥류관 생일파티

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로 구체화된다.

북미관계의 변신은 우리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다. 먼저 우리 땅에서 전쟁격정이 사라진다. 한반도는 중동과 함께 전쟁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실제 1994년 6월 18일 영변폭격 1시간 전에 카운트다운이 멈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해역에 집결시켜 최고 수준의 압박을 했으며, 29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12월 4일 전투기 230대를 동원해 핵시설 폭격작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북미대결이 최고조에 도달했으나 10일 후 미국이 먼저 대화제를 하고, 북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선언하면서 북미대화가 시작돼 정상회담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북미관계 변신은 평화통일을 촉진한다.

북미관계정상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수교로 이어지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촉진하게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다시 열리고, 이산가족이 기차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학생들은 기자타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고, 고등학생들은 신라와 백제 권에서 고구려 유적까지 보는 평양 수학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나는 통일이 된다면 두 가지 꿈을 이루고 싶다. 먼저 22년 동안 묵묵히 통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아내에게 옥류관에서 생일파티를 해주고 싶다. 평양을 두 번 방문해 냉면 맛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다. 오랜 세월 통일을 기다린 아내에게 기쁨을 듬뿍 안겨주고 싶다.

그리고 DMZ와 개마고원 트레킹을 가려고 한다. 대결의 땅이던 DMZ를 걸으면서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상상해 보고

싶다. 개마고원은 산티아고와 네발 히말라야처럼 세계적인 걷기명소가 될 것이다. 여름에도 온도가 활동하기 가장 쾌적한 18도여서 개마고원을 걷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맑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과 통일만보를 하면서 평소애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통일만보는 걸으면서 통일을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운동이다.

일주일 중 하루 당면을 정해서 걷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함께 모여 걷기명상을 한다. 그동안 풍암 저수지, 화순 너릿재, 운림동 동적골, 푸른길을 걸었다.

오늘은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너릿재에서 은빛평화순례를 한다. '걸으면서 통일한다'는 말처럼 이제 통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있다.

Table with emergency and life information numbers, including 112, 119, and various emergency services.

독자광장

선거유세차량 확성기 '소음공해' 심각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유세 첫날부터 도심권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선거운동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연일 112신고센터에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밤새 야근을 하고 온 직장인들의 단잠을 깨우거나 학업에 열중하는 수험생의 공부방 방해하고 상가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듯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각 지역 곳곳은 새벽부터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후보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량을 아파트 단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에 세워놓고 확성기 불륨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선거법 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확성기를 이용,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표라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역의 참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자세가 우선되었으면 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용양파출소